

농림축산식품부

삼계탕, 중국 수출길이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지난 10월 31일 “우리나라산 삼계탕의 중국 수출 위생 및 검역·검사 조건”을 중국 정부(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와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역·위생 요건이 합의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거대한 중국시장으로 우리 전통식품인 삼계탕의 진출이 가능하게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그간 지적되어 온 수출 비관세 장벽 해소와 국내 닭고기 공급 과잉 개선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 일본 등 8개국으로 약 1,691톤(7,581천봉)의 삼계탕을 수출하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

HPAI 등 국가재난형 동물질병 예방을 위한 한-러 간 공동연구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직무대리) 노수현, 이하 검역본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국가간 전파가 가능한 동물질병의 방제를 위한 국제협력력을 목적으로 ‘한국-러시아연방 동물질병 공동연구를 위한 기술협의회’가 지난 10월 22일 러시아연방 동식물위생감독청(FSVPS)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역본부는 HPAI 등 국가재난형 질병의 반복적 발생에 따라 주변국가와의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등 아시아 주변국과의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며, 국제협력 지역확대에 노력하여 왔다. 이번 기술협의회는 우리 측의 대러시아연방 공동연구제안에 따라 러시아연방 동식물위생감독청의 수용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기술협의회에 한국 대표단은 백종호 동식물질병연구부장을 수석대표로 동물질병연구 실무담당자 등 총 5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의 HPAI 발생현황과 연구성과 등을 소개하고, 앞으로 추진될 공동연구의 방향과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 하였다.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개정 고시

검역본부는 지난 4일 동물용의약품등의 제품명칭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은 동물용의약품등의 제품명칭에 대한 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심사기준이 단순히 기존 허가 명칭과 상이하도록만 되어 있어 동일 성분을 가진 제품이라 하더라도 성분과 관련된 제품명을 쓰지 못하는 등 기업애로사항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명 기재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김천 신청사 이전에 앞서 기념행사 가져



검역본부는 김천혁신도시 신청사 이전 이사를 앞두고, 지난 19일 청사 내 조경수와 ‘축훈비’ 등 조형물에 대한 이전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검역본부 김천 혁신도시 신청사는 금년 12월중 경북 김천시 울곡동 일대에 준공되며, 청사이전은 2015.12.21.부

터 2016년 4월말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본격적인 청사이전을 한 달여 앞두고, 그동안 동물실험과 가축방역 등 과정에서 희생된 동물들의 넋을 기리는 한편 안전하고 원활한 청사이전을 도모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하였다. 검역본부 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행사는 축훈비 위령제를 시작으로 검역원 100주년 기념비, 축훈비, 일부 조경수에 대한 상차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들 기념물들은 김천 신청사내에 마련된 별도장소에 안착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아프리카 양계 산업 본격 지원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이 아프리카 양계 산업 지원에 두 팔 걷고 나선다. 세네갈 다카르에서 세네갈 농업연구청(ISRA)과 함께 지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한국-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이하 KAFACI)의 '양계 사양 기술 개발 공동 연수(워크숍)'를 개최 했다. 이번 연수에는 KAFACI 17개 회원 나라 중 세네갈, 케냐, 에티오피아 등 14개 나라가 참여했다. 농촌진흥청은 KAFACI 축산 프로그램 중 '상업화를 지향하는 소농들의 양계 생산성 증대를 위한 지역 적응 사양 기술 개발과 보급' 사업의 하나로 행사를 마련했다. 공동 연수에서는 회원 나라별 양계 기술과 산업, 연구 현황을 공유하고 각 나라의 연구 역량과 농가 기술 적용 현황을 파악해 각 나라에 맞는

양계 기술과 지침을 발굴, 개발한다. 회원 나라별 양계 지침 최종안은 2016년 6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2차년도 공동 연수에서 만들 계획이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해법 찾는다



농촌진흥청은 가축분뇨를 이용한 재생에너지의 산업화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12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가축분뇨 이용 바이오 에너지화 기술' 국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미국과 국내 가축분뇨 에너지화 전문가들이 참석해 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화 기술, 바이오가스화 후 발효액 처리기술, 국내 가축분뇨 이용 에너지화 정책, 바이오가스화와 고형연료화 기술에 대해 논의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미국 전문가들이 △ 조류를 이용한 혐기소화액 처리기술 적용 사례(미국 농업연구청 월터 멀브리 박사) △ 미국의 가축분뇨 처리와 바이오가스 생산 기술 동향(메릴랜드대학교 스테파니 랜싱 박사)을 발표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추진 정책 방향(농림축산식품부 송태복 팀장) △ 가축분뇨이용 수열탄화 기술(고등기술연구원 김호 박사) △ 국내 가축분뇨 고형연료 기술 현황과 발전 방향(국립축산과학원 정광화 연구사)을 다뤘다.

동물 사체 액상화 처리 기술 개발

농촌진흥청은 축산 농가 등에서 발생하는 동물 사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동물 사체 액상화 처리 장비'를 개발했다. 폐사된 동물의 사체는 부패



로 질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2차 오염을 막기 위해 멸균처리 하되, 우선적으로 발생 농장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사용하는 소규모 랜더링 방식이나 FRP통 매립, 퇴비장 처리 방식은 작업 후 발생하는 부산물 처리와 오염원을 신속히 치우기 힘든 점 등 처리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이번에 개발한 ‘동물 사체 액상화 처리 장치’는 동물 사체를 알칼리(KOH) 용액과 열, 압력을 이용해 가수분해하고 액상 물질(아미노산 등) 형태로 만드는 장비다. 가수분해 과정을 거치면 동물 사체에 있는 균이 완전히 죽는다. 특히, 고온·고압이 아닌 저온·저압에서도 안정적으로 멸균처리가 가능하다. 기존 방식(소각 6시간~8시간, 랜더링 4시간~6시간)보다 빠른 2시간 안에 동물 사체뿐 아니라 병원체까지도 처리할 수 있다. 처리 과정 중 별도의 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액체 상태의 처리 산물은 추가 처리 작업 없이 토양 개량제나 비료, 사료, 공업용 원료 등으로 바로 재활용할 수 있다. 소동물인 실험 동물, 개, 고양이, 닭 사체부터 돼지, 소까지 다양한 크기의 동물을 처리할 수 있어 모든 동물 사육 농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세종시 신청사 개청식 개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임경중)는 지난 10



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가축질병 청정화와 안전한 축산물 공급 일류기관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신사옥 개청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청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식품산업정책실장, 이준희 세종시장, 공공기관 및 축산관련 단체장, 기타 내빈 등 초청인사, 위생방역본부 임직원 등 약 120여명이 참석하였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신사옥은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지열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서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사무공간으로 설계되는 등 친환경 녹색건축을 실현하였으며, 지난 9월 21일 경기도 안양시대를 마감하고 세종시 신청사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양계농협 영천유통센터와 MOU 체결



인증원은 지난 5일 영천유통센터 회의실에서 한국양계농협 영천유통센터와 ‘목계촌’ 브랜드의 안전관리통합인증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갖고 협

정서(MOU)에 서명했다. 협약식은 이주연 영남지원장과 김진석 센터장을 비롯해 인증원 영남지원에서는 농장팀장, 가공·유통팀장, 전담심사관이 참석하였고, 양계농협 영천유통센터에서는 감사와 지역본부장 등 관계자들의 참석 하에 진행됐다. 인증원은 가축의 사육과 축산물의 가공, 유통 및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HACCP을 적용한 축산물만을 취급하여 국민에게 안심축산물을 공급하는 안전관리통합인증제를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가 조기에 인증 받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측은 목계촌의 통합인증 획득에 필요한 HACCP 교육과정 개설과 전담 심사관 배정, 맞춤형 현장 기술지도를 비롯해, HACCP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과 시설 지원을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 HACCP전문가를 초청, 세미나 열어



인증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의 후원으로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The-K Hotel Seoul에서 “해외 HACCP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축산현장과 유사한 일본의 전문가인 일본 SMC의 오오이 무네타카 대표와 프리팅의 위생안전팀장인 네모토 코지로를 초청하여 일본 HACCP 정책 및 시스템과 생산에서 판매까지의 위생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둘째 날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김성일 계장이 축산물 안전관리 정책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장재홍 서

기관의 축산물 생산단계의 위생관리 방향에 대한 강의 있었다. 이번 교육에는 인증원의 HACCP 심사관 외에도 축산물의 위생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업체에서 HACCP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박 2일로 진행되었다. 인증원은 2012년부터 해외의 HACCP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HACCP 제도와 운영상의 선진사례를 습득하고 국내 전문가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우리나라 HACCP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세미나를 개최하여 왔다.

‘2015년 축산물HACCP운용 우수작업장 시상식’ 개최



인증원은 지난 16일 양재동의 AT센터에서 ‘2015년 축산물HACCP운용 우수작업장’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시상식에는 HACCP 우수작업장으로 선정된 40개 업체 대표와 농림축산식품부 이천일 축산정책국장, 한국소비자교육원 전성자 원장,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병규 회장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인사와 HACCP 운용 우수업체의 사례발표에 이어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축산물 HACCP운용 우수작업장 선발·홍보사업은 ‘10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15년 현재까지 총 153개소 작업장을 우수작업장으로 선발하여 시상해왔다. 이 사업은 선정된 HACCP 우수작업장에는 위생과 안전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통해 매출 증가를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HACCP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축산물

HACCP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축산업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안심 식탁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15년도의 HACCP 우수작업장은 시·도, 인증원의 추천과 자율 신청으로 선정된 172개소의 작업장을 대상으로 엄격한 서류심사와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장심사 결과로 선정되었다.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된 14개 업종, 40개소의 HACCP 우수작업장(사료 3개소, 농장 23개소, 가공 10개소, 유통 4개소)은 점수가 높은 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상,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등 7개 단체장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축산물HACCP 알가공업체 현장견학



인증원은 지난 10일 소비자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식용란 수집판매업 및 알가공업 HACCP 인증업체를 견학하였다. 이번 견학 프로그램은 식용란 및 알 가공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안전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HACCP운영 우수업체인 (주)조인의 용인 및 음성공장을 방문하였다. 이날 견학에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모니터 요원 등 40명의 회원들이 함께했으며, 먼저 용인 기흥에 위치한 GP센터에 방문하여 계란 선별 집하장을 둘러봤다. 이어 충북 음성의 알가공장을 방문하여 HACCP 시스템에 의해 위생·안전적으로 생산되는 과정을 꼼꼼히 살펴봤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황명자 부회장은 “알가공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생산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니 모든

과정이 참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며, “계란을 비롯해 알 가공품을 더욱 믿고 먹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양계농협
영주선비골계란유통센터 준공식 개최**



영주시는 지난 10월 22일 영주선비골계란유통센터(장수면 장안로 151-23) 준공식을 갖고 경북 북부권 지역 계란유통 중심지로 거듭날 계획이다. 영주선비골계란유통센터 건립은 도내 최대 산란지역인 영주시의 산란계 농가 전업화, 규모화 경향에 부응하여 대규모 유통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영주선비골계란유통센터 건립 및 운영사업자는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인배)으로서 2014년 9월 착공되어 2015년 6월 준공 승인되었으며, 대지 8,264.6㎡, 건물 2,332.29㎡(705평)로 계란의 세척에서 살균, 선별, 포장에 이르는 작업공정이 완전 자동으로 처리되는 내부 공정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1일 300,000개의 계란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유통센터에서는 영주시 및 도내의 산란계 사육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을 유통센터 입고장을 통해 보관창고에 쌓고 이곳에서 신선도와 외관심사를 하게 된다. 입고 심사를 마친 계란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세척과 건조과정을 거친 후 포장되어 납품하게 된다.